

불자 세상보기



정념 스님  
평창 월정사 주지

평창이 인류의 집결지로 결정됐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연원했던 평창이 선택됐다. 우선 지역주민에게 축하를 드리며, 국민 모두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두 번의 실패와 거듭된 좌절감을 딛고 10여 년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뜻깊은 햇살을 마주하였다. 그 세월을 서려있는 역경을 어찌 말로 형언하겠는가. 두 번의 실패, 거듭된 좌절감을 딛고 일어서 세 번째 도전이었기에 더 간절했다. 시련에 겨워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일은 더 괴로웠을 테다. 유럽의 프라하, 남아메리카 과테말라에서 연이어 눈

물을 삼키고, 이번에는 아프리카 더반으로 날아가 수처작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그 여려한 심정을 껴 냈다. 하여 비로소 동의를 얻어냈으니 철수개화(鐵樹開花), 화리생환(火裏生蓮)이 아니겠는가.

이번 유치전에서 독일 뮌헨은 '뿌리로 돌아가자(Back to the Roots)'는 문구를 앞세워 동계스포츠의 역사와 문명적 인프라를 강조했다. 프랑스 안시는 '눈, 얼음 그리고 당신(Snow, Ice and You)'을 내세워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했다.

평창은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앞세웠다. 세 곳의 슬로건에 걸려 있는 의미를 헤아려 보자. 유럽의 두 도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평창은 희망찬 미래 장조를 다짐하고 있지 않은가.

평창은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면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약속한 드림 프로그램 운영을 8년간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없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자연의 오묘한 이치와 송고함을 일깨워줬으며, 아시아 전역과 아프리

카 등으로 동계스포츠를 확대하여 전 세계에 꿈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것이 평창이 추구하는 인류애이고 올림픽 정신의 실천이다.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실천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고,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이것은 강원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힘인 것이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대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민족의 정체성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펼쳐내는 문화축전이다. 우리는 근래에 있었던 토리노 동계올림픽, 베이징 하계올림픽, 밴쿠버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개최국의 민족문화를 분명히 목격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중화민족의 공명향 고동(動動)을 총격적으로 실감했다. 우리는 2018년 2월 9일에 우리 국민의 가슴에 흐르는 역사와 문화, 정신을 담은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한 번 평창의 형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다. 백두대간의 심장, 오대산과 그 품에 안겨 있는 문화

유산과 민족정신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다행히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와 한민족 아리랑의 모태인 정선아리랑이 있다. 그리고 아직은 제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찾아온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 오대산분위이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 물론 반만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내어 전 세계인의 가슴에 환희와 감동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가 노고자 많았던 만큼 쾌거를 한껏 즐기시라.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스스로 경계할 것이니 이내 웃음을 다시 머미고 웅비(雄飛)를 준비할 일이다.

다시 한 번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남과 북,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

社說

결사추진본부가 성공하려면

조계종은 7월 4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의 헌판식을 개최했다. 5일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 중앙총무기관 3차 100일 정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제3차 100일 정진 계획에서 정진대회활동과 부서 등 단위별 결사와 나눔 활동이 중점이라고 했다. 안타깝게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 3000배를 울리던 열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눔이 중점이라는 말도 걸린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는 역대 총무원장 때도 있어왔다. 前 총무원장 지관 장님이 연탄을 나르던 부암동이 배사마을로 장소만 바뀐 것 아닌가. 108배 동참 역시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해 온 행사에 동참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중 눈에 띄이는 계획이라고는 뇌성마비 장애인과의 친선경기뿐이다.

결사추진본부 출범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세운 것인지, 결사가 흐지부지될 경우 책임회피를 위해 완충지대를 만들어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거대 여당인 화엄·법화회의 화려한 맨파워는 어찌고, 왜 종권의 아웃사이더 격인 도법 스님이 본부장에 임명됐는지도 의문이다.

불자들은 제3차 정진계획의 진부함이나, 결사추진본부의 출범에 있을지 모를 정치적 포석에도 불구하고 '자성과 쇄신의 5대 결사'를 믿고 지지하고 싶다. 실천하고 싶다. 조계종이 이들의 바람에 호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범시킨 결사추진본부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성문화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된다.

평창의 환경 문제도 살펴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다. 조계종 등 불교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이를 축하했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라이벌이던 뮌헨이 친환경을 주창한 반면에 평창은 개발을 강조했다. 평창을 홍보하는 동영상에서는 KTX가 설원을 누비는 장면이 있었다. KTX는 주철 특성상 상·하·좌·우로 철로의 편차가 클 수 없다. 채산성은 차치하고 곧 아야만 하는 철로 탓에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KTX가 지나갈 길에 천년고찰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이 정권은 새 도로망 사업을 빌미로 땅이름에서 불교의 흔을 빼앗는 정권 아니던가.

조계종 등 불교계는 그동안 수행환경을 중시해 왔다. 1400년을 넘게 사

찰집을 가꾸고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천성산·사패산 터널 등 길이 뚫리는 곳에서는 수행환경을 명분 삼아 대자연의 편에 서왔다. 내가 하면 불사고, 남이 하면 수행환경 파괴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불교계는 수행환경 수호의 지를 다졌다. 환경보살로 화현한 수경·지율 스님 등의 정진은 개발 논리에 맞물린 우리를 깨우는 장군축비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불교계가 축하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봐야 한다. 중생의 기쁨은 함께 나눠도 다가를 재앙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40여 년 숙원인 관계법령 개정이 가져다 줄 '개발의 자유' 때문에 아닌지 돌아볼 봐야한다.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평창의 그늘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필요하다.

사부대중 칼럼



법상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얼마 전에 필자는 교수아사리 연찬회에서 교육원의 교육원장님으로부터 부채를 선물로 받았다. 부채를 선물 받고 한동안 연찬에서 그 의미를 잠시 생각한 적이 있다.

요즘처럼 선풍기나 에어컨이 만연한 시절에 부채를 선물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원장스님은 각자의 노력으로 교육의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교육 불사를 원만히 하도록 배려하신 것이라 짐작해 보았다. 그러면 불자에게 부채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시원한 바람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조성하는 주체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요즘 급변하는 기상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만연한 에너지 과소비와 불려들인 환경오염과 기존의 이상 기후는 우리의 탓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책임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한여름 환경을 바꾸는 부채

한여름에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려 지겹게 하고, 태풍이나 가뭄 등은 삶의 주체들에게 불안을 조성한다.

원인과 결과의 내용으로 보면 한여름의 무더위는 우리의 탐욕이요, 지겨운 장마는 번뇌의 유희이며, 태풍은 성냄의 발산이요, 가뭄은 우리의 인색함이다. 하지만 마음을 돌이켜 생각하면 무더위는 알알이 영글어가는 곡물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양분이고, 기승을 부리는 장마는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행위이며, 태풍 역시 오염된 공기를 맑혀 주는 부채질이요, 가뭄은 오염된 대지를 청소하여 정화하는 보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한여름에 벌어지는 환경의 작용들은 지구촌을 아름답게 바꾸는 보살행인 우주의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나친 환경의 발전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오만한 우리 인간 마음의 부조화된 표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원한 바람으로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부채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구촌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보다 견허함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짐으로 몸과 마음을 순화하는 행위가 요청된다.

우선 우리는 계절의 환경이 내게 맞추어 주길 바라지 말아야 하며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삼목의 정화로서 부채질을 해야 한다. 탐욕의 과소비를 줄이고, 성냄의 무더위를 식히고, 무지의 인색함을 배푸는 넉넉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바람이어야 한다. 너와 나, 우리가 기뻐하는 예결과 진실한 말을 나누며 여유하면서 즐거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순간의 삶을 영원으로 지향하는 진실하고 소박한 생명의 살림과 꾸준한 노력의 대가 외에 바람이 없는 행동과 절제된 사랑을 하면서 더불어 기쁨을 주고받는 삶을 시원하게 부채질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부채의 역할일 것이다. 여름날 넉넉한 자비와 기쁨과 평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건에 맞는 물질과 두려움 없는 텅 빈 가슴을 베풀고, 짜증스런 계절의 권태를 환희로운 바람들로 채우는 부채가 되며, 어떤 몸짓이든 태풍처럼 허공을 맑히는 이익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의 빗물로 채운다.

모든 것이 공공의 소유임에 무질적의 무소유로 배푸는 바람이고, 너와 나, 우리가 예티켓을 지키면서, 사바에서 공존하는 기쁨이 바로 절제된 인내의 바람을 일으켜서 삶의 파노라마가 늘 열반의 메시지로 펼쳐이는 부채의 몸짓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태양의 지혜로 늘 역동하는 것임을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나날이 기쁨의 시원한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우리는 고달픈 여름에 짐작을 놓고 변화하는 무상을 즐기며 지구촌의 열반이란 부채의 몸짓임을 자각한다. 그리고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 내게 계절의 환경이 바로 모든 생명의 몸짓임을 자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여름 계절의 부채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시원하게 하는 우주적 동력임을 자각한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무아의 실현이기에 이 계절에 맞추어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다. 우리가 만든 주어진 환경에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더욱 즐거운 삶을 엮어갈 수 있는 부채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지구촌의 설계를 실현하는 절대 필요한 존재이기에 에너지의 과소비를 줄여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정원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경이 그대를 괴롭힐지라도 고달파하거나 노하지 않는 계절의 부채가 되어서 멀지 않는 결실의 계절을 위해 주어진 한여름 환경을 아름답게 바꾸는 부채질을 한다.

이 부채의 몸짓이 바로 불자가 수행하는 보살도이고 시원한 법신의 나타남이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인사총무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연발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소형물 연발상담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계제·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이 재 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 천축,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土)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